



1주차 과제 : JVM 은 무엇이며 자바 코드는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가

학습 목표

자바 소스 파일(.java)을 JVM 에서 동작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JVM이란 무엇인가
- 컴파일 하는 방법
- 실행하는 방법
- 바이트코드란 무엇인가
- JIT 컴파일러란 무엇이며 어떻게 동작하는지
- JVM 구성 요소
- JDK와 JRE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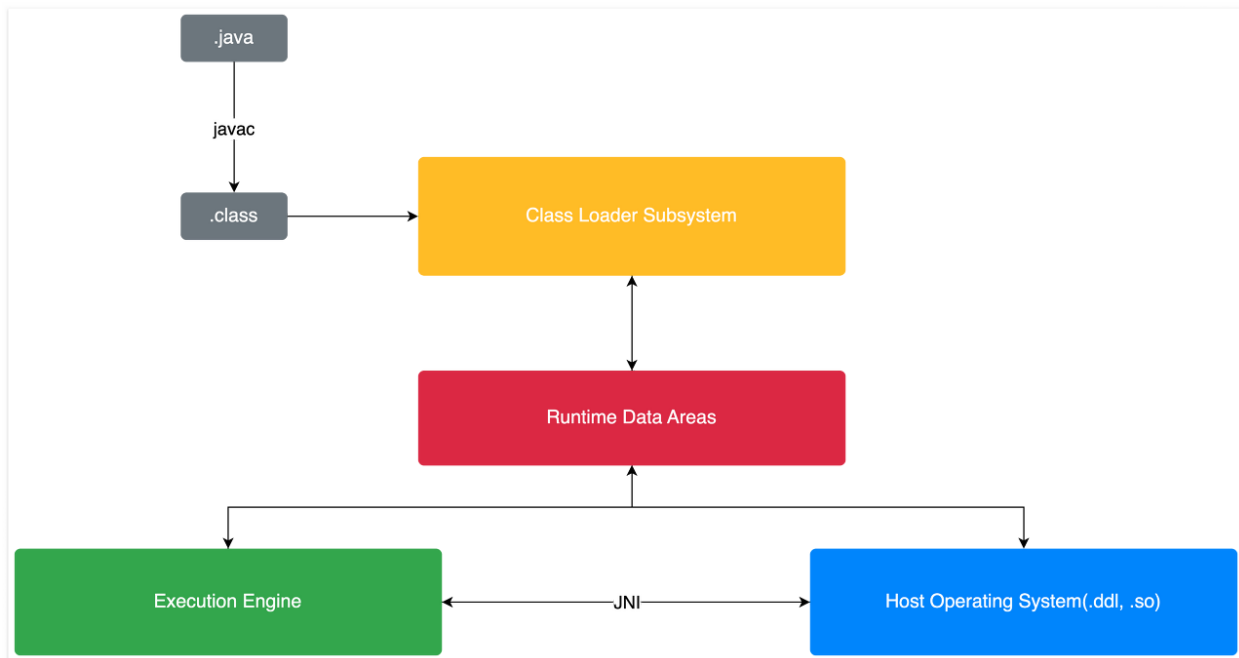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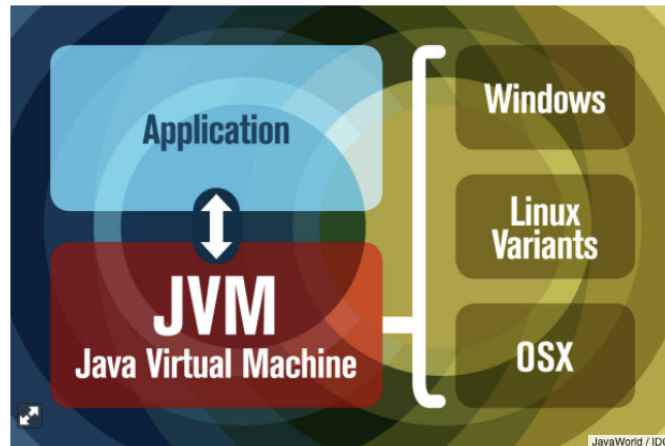
Advanced

- GC란 무엇인가
- GC의 종류 및 각 GC별 동작 알고리즘
- cloud-native 환경에서의 JVM 관리의 특징

JVM 이란 무엇인가

- 자바 컴파일러는 .java 파일을 .class 파일로 변환
- .class 파일에 포함된 바이트 코드는 기계어가 아니어서, OS 에서 즉시 실행이 안됨
- 그래서 OS 가 바이트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기계어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**JVM** (JAVA Virtual Machine)

- JVM 위에서는 바이트코드가 OS 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되기 때문에, 바이트코드는 JVM 위에서 **OS에 상관없이 실행**된다.
 - 따라서 JVM만 설치되어 있으면, **OS 에 종속적이지 않게 자바 코드 실행 가능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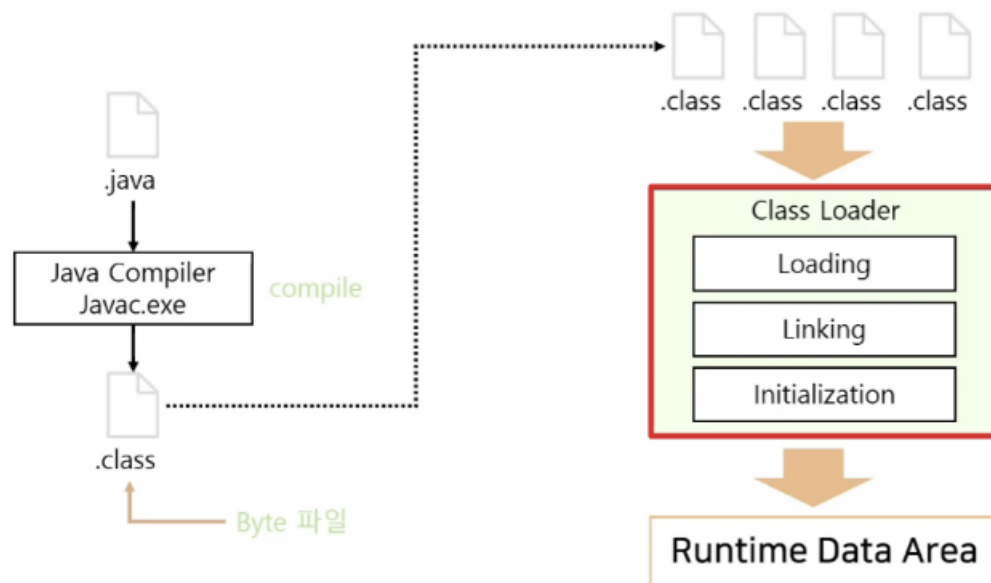
JVM 이 바이트 코드를 해석하는 원리

1. .java 파일이 javac (컴파일러) 에 의해 .class 로 컴파일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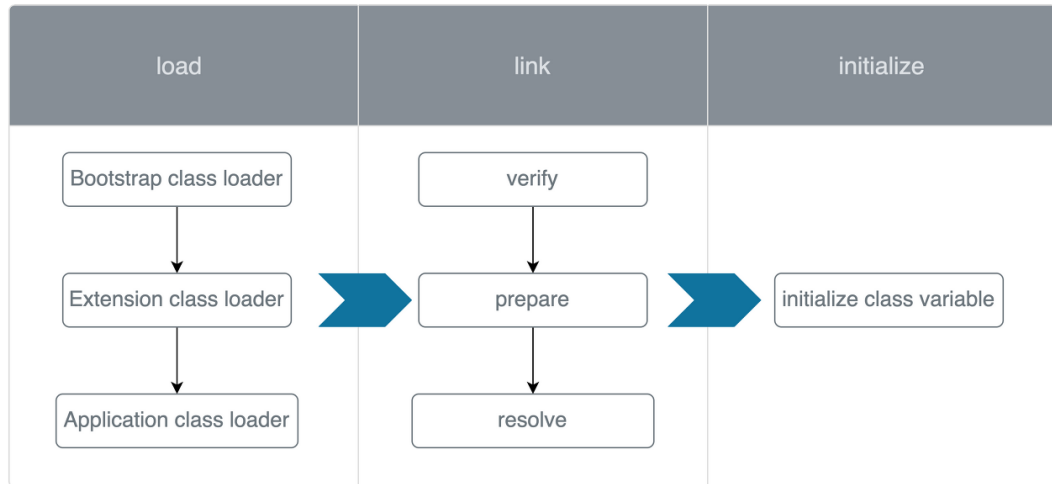
2. 클래스파일은 JVM 의 **Class Loader** 는 동적로딩을 통해 필요한 클래스들을 로딩/링크 하여 실제 메모리를 할당받아 관리하는 영역인 **Runtime Data Area** 에 올린다

▼ **클래스로더** : JVM 내로 클래스 파일들을 동적으로 로드하고, 링크를 통해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 (로드된 클래스 코드를 엮어서 JVM 메모리 영역인 Runtime Data Area 에 배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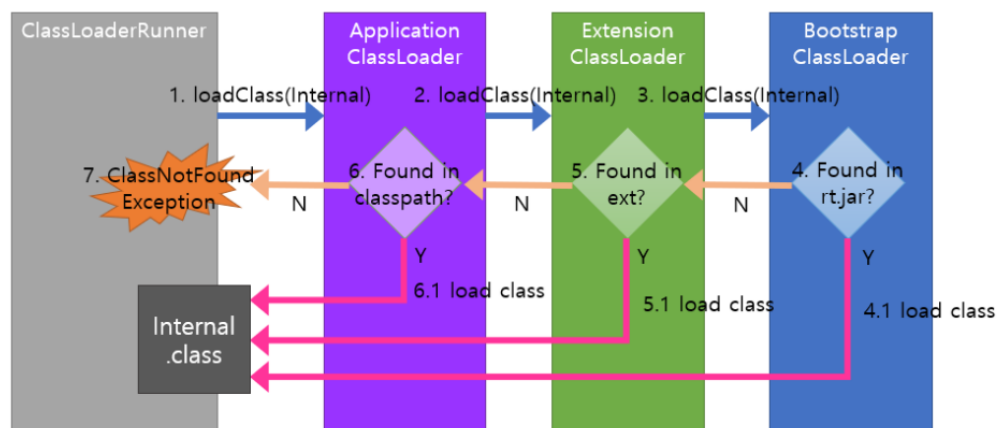
- 바이트 코드를 3가지 클래스 로더로 로딩하여, 링크로 코드 내부의 레퍼런스를 연결하고 static 변수의 초기화 과정을 거쳐 실행 엔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JVM 메모리 영역에 적재하는 시스템



- 클래스 파일의 로딩 순서



1. Load : 클래스 파일을 가져와 JVM 메모리에 로드 하는 과정



-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클래스 로더들이, 클래스 로딩을 요청할 때 상위 클래스 방향으로 위임하는 메커니즘이 존재
- 클래스 유형별로 계층을 구분하고, 로딩될 때 전부 다 로딩되지는 않고 해당 클래스 로더까지만 부분적으로 탐색하고 로딩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의 모델
- **Bootstrap class loader**
 - JAVA_HOME/lib에 있는 코어 자바 API를 제공 (jre/lib/rt.jar)
 - Object.class, String.class 등
 - 최상위 우선순위를 가진 클래스 로더

- Native C 로 구현됨
- **Extension class loader**
 - JAVA_HOME/lib/ext 폴더 또는 java.ext.dirs 시스템 변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클래스를 읽는다 (jre/lib/ext/*.jar, java.ext.dirs/*.jar)
 - java 로 구현됨
- **Application class loader**
 - 애플 ClassPath(애플 실행 할 때 주는 -classpath 옵션 또는 java.class.path 환경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위치)에서 클래스를 읽는다 (-classpath, -cp, Manifest)
 - java 로 구현됨

2. Link : 클래스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**검증** 하는 과정

- Verify : .class 파일 형식이 유효한지 체크 (클래스가 자바 언어 명세 및 JVM 명세에 명시된대로 구성되어있는지)
- Prepare : 클래스 변수 (static 변수) 의 기본값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, 클래스의 필드/메소드/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 준비
- Resolve (Optional) : 클래스의 상수 풀 내의 심볼릭 메모리 레퍼런스를 메소드 영역에 있는 실제 레퍼런스로 교체, 심볼릭 레퍼런스 ≠ 메모리 번지 참조가 아니라, **이름에 의한 참조를 말하는 것 like 바로가기 파일**

3. Initialize : static 값들을 명시된 값으로 할당하는 과정

3. Runtime Data Area 에 배치된 바이트 코드는 **Execution Engine** 에 의해 실행된다

▼ **실행엔진** : 실행 엔진은 클래스 로더를 통해 런타임 데이터 영역에 배치된 **바이트 코드** 를 명령어 단위로 읽어서 실행

- 바이트 코드를 실제 JVM 내부에서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해줌
- 이 때 실행 엔진은 Interpreter, JIT 컴파일러 2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함

4. 이 과정에서 Execution Engine 에 의해 GC 의 작동, Thread 동기화가 이루어진다

컴파일 하는 방법

- `javac` 명령어 사용하면, 클래스파일이 (ex) test.class) 생성됨
 - ex) `javac [JAVA 파일명] / javac test.java`
- `javac` 로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, 클래스파일이 생성되는 이유
 - C 또는 C++ 등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최종 결과물로 exe 파일을 만들어낸다. 사용자는 그냥 단순히 exe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.
 - 물론 자바도 exe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JVM이 exe에 포함되는 형식이어야 하므로 exe 파일이 무척이나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.
 - C, C++ 등의 언어에서 만든 실행 파일은 JVM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.
 - 하지만 운영체제마다 실행 파일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.
 - 반대로 자바는 JVM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으므로 C, C++ 등의 언어보다 속도가 느리다.
 - 하지만 한 번 작성한 클래스 파일은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 - 자바 또한 JIT just-in-time 을 도입하는 등의 발전을 거듭하여 실행 속도도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거의 C, C++를 따라잡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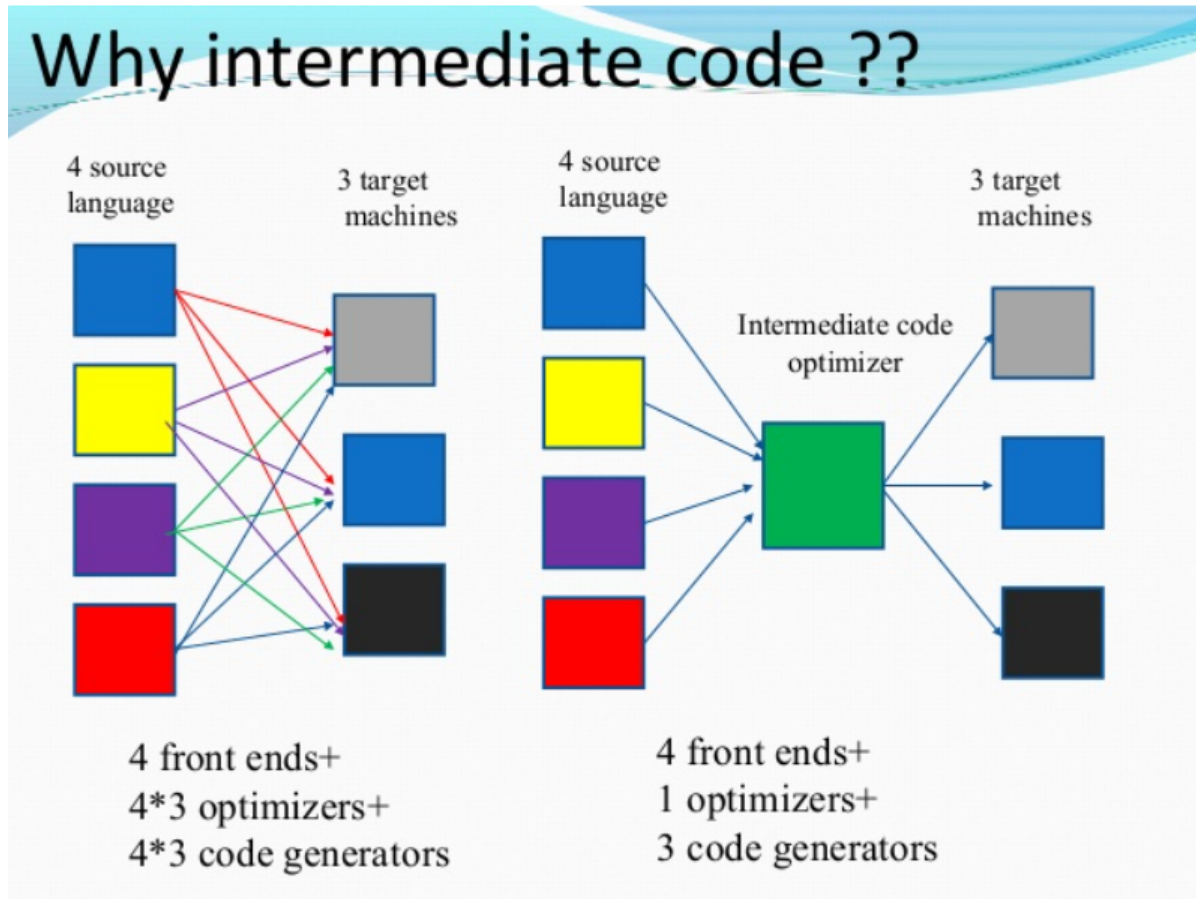
실행하는 방법

- `java` 명령어 사용 ex) `java [클래스 파일명] / java test`
- java 명령어는 JRE 를 실행하는데, 이는 java 명령어의 **인자로 지정된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한 자바 실행환경이 조성됨**을 의미한다.
- 인자로 지정된 클래스를 로딩하고 main() 메소드를 호출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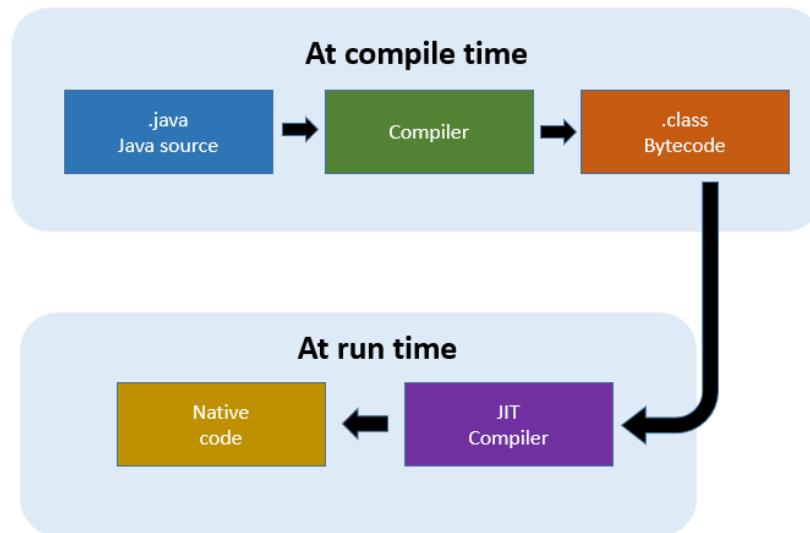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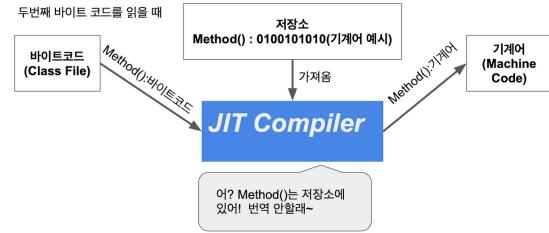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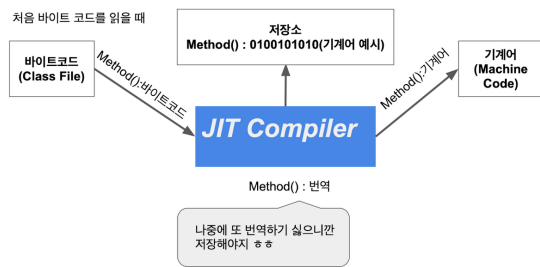
바이트코드란 무엇인가

- 특정 하드웨어가 아닌 **가상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실행 프로그램**을 위한 **이진 표현법** (특정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음)
- 가상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

- 바이트코드는 다시 인터프리터나 JIT 컴파일러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 (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0,1 로 구성된 이진코드) 로 변환됨
-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 이유
 - 중간단계를 하나 두어서, 간접화를 통해 경우의 수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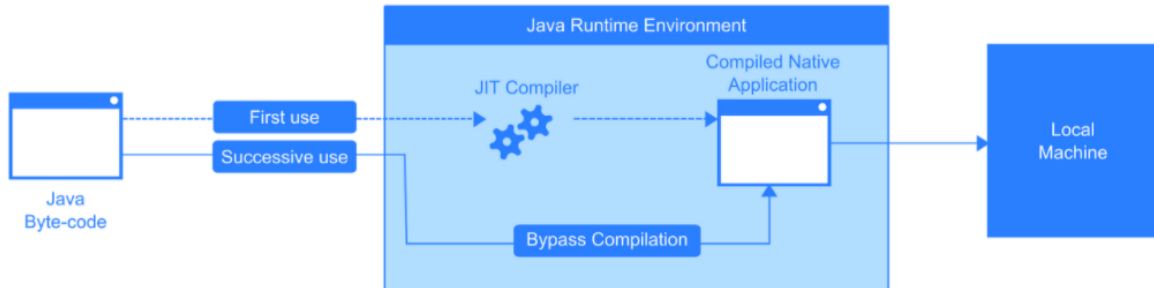
JIT 컴파일러란 무엇이며 어떻게 동작하는지



- 자바는 **바이트 코드로 한 번 컴파일**하고, **바이트코드를 인터프리터** 하는 방식 2가지를 진행한다
- C언어보다 자바가 느리다고 하는 이유
 - 바이트코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, **인터프리터** 를 사용해서 **런타임 시** 한줄씩 읽어야 함. 따라서 **런타임 전** 소스코드를 미리 읽어서 기계어로 변환하는 **컴파일러** 방식보다 느릴 수 밖에 없음
 -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, **번역된 코드는 캐싱**해두고, 다음에 똑같은 코드가 있다면 **번역하지 않고 캐싱된 값을 사용하여** **매번 기계어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**해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(즉,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속도 개선)
 - 바이트코드를 Native Code로 변환하는 데에도 비용이 소요되므로, JVM은 모든 코드를 JIT 컴파일러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고 **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**하다 일정 기준이 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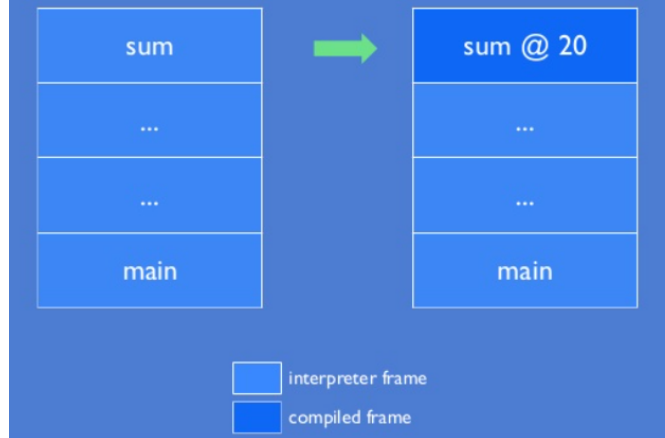
어가면 JIT 컴파일 방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식으로 진행

-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방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혼합한 것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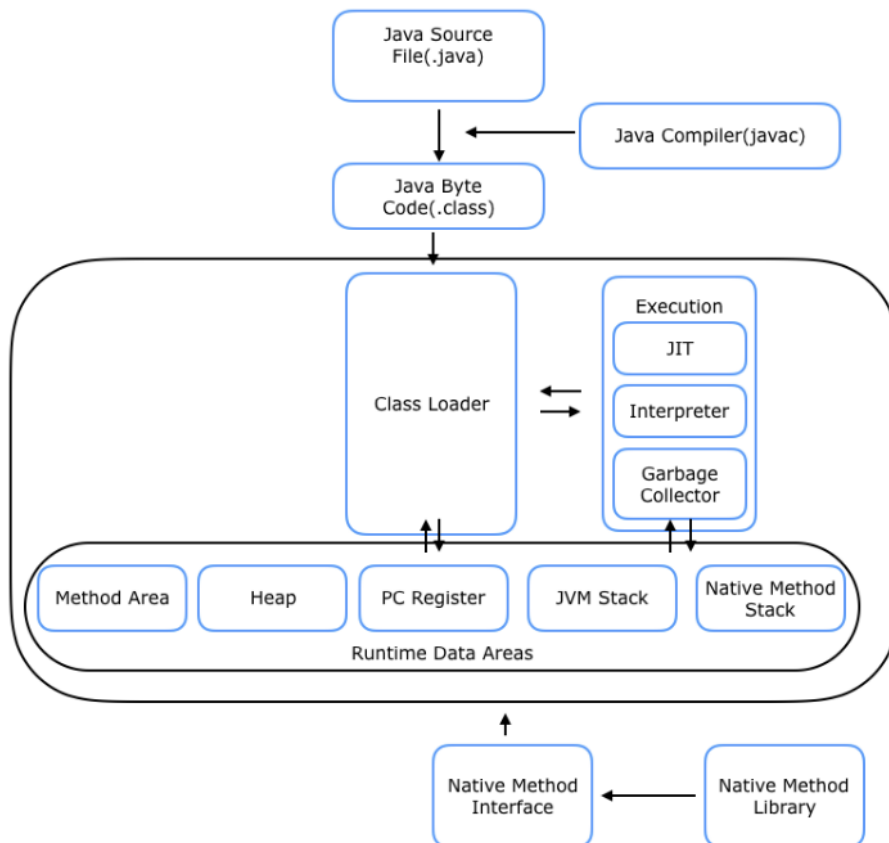


- JIT 컴파일러의 Just In Time 은 '제 때' 라는 뜻이며, 이는 자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를 의미함. 하지만 자바 메소드는 처음 호출되자마자 컴파일이 되는 것이 아님
- JVM이 호출되는 메서드 각각에 대해 호출마다 호출 횟수를 누적해서 그 횟수가 특정 수치를 초과 할 때 컴파일함. 즉, 얼마나 자주 호출되는지 검사한 후 '이제는 컴파일이 필요한 시점이다'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, 이를 컴파일 임계치 라고 한다
- 컴파일 임계치는 아래 2가지를 합친 것을 말한다.
 - Method Entry Counter (JVM 내의 메소드가 호출된 횟수)
 - Back-Edge Loop Counter (메소드가 루프를 빠져나오기까지 돈 횟수)
- 위의 2가지 카운터 합계를 확인하고 메소드가 컴파일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한 후, 자격이 있다면 해당 메소드는 컴파일 되기 위해 큐에서 대기하게 되고, 이후 컴파일 스레드에 의해 컴파일됨
- OSR (On Stack Replacement) : 메소드 스택 상에서 컴파일 된 버전을 바로 실행시키는 것
 - 스택 프레임을 컴파일 된 것으로 교체해서 속도를 개선한 것

On-Stack Replacement



JVM 구성 요소



▼ **클래스 로더 (Class Loader)** : JVM 내로 클래스 파일(*.class)을 동적으로 로드하고, 링크를 통해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

▼ **실행 엔진 (Execution Engine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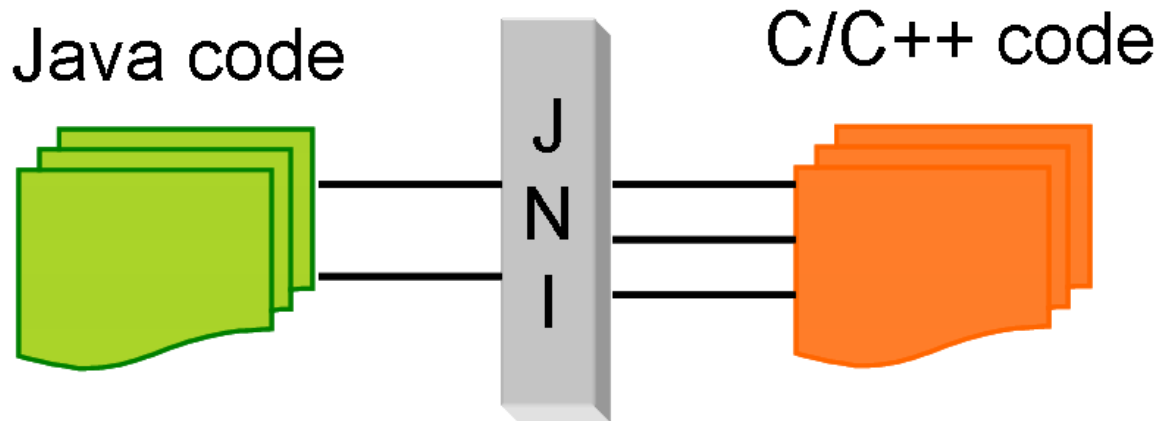
- Interpreter
 - 바이트 코드 명령어 하나씩 읽어 해석하고 바로 실행
 - JVM 내에서 바이트 코드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하기에, 같은 메소드라도 여러번 호출되면 매번 해석하고 수행해야해서 속도가 느림
- JIT 컴파일러
 - 인터프리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, 반복된 코드를 발견하여 바이트 코드 전체를 컴파일하여 **Native Code** 로 변경하고, 이후에는 해당 메소드를 더이상 인터프리팅하지 않고 **캐싱** 해두었다가 Native Code로 직접 실행하는 방식
 - 하나씩 인터프리터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, 컴파일 된 Native Code 를 실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는 인터프리팅 방식보다 빠르다
 - 바이트코드를 Native Code로 변환하는 데에도 비용이 소요되므로, JVM은 모든 코드를 JIT 컴파일러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고 **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다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JIT 컴파일 방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식으로 진행**
- GC
 - Heap 메모리 영역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회수
 -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실행되지만, 단 GC(가비지 컬렉터) 가 실행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.
 - 특히 Full GC 가 발생하는 경우, GC 를 제외한 모든 스레드가 중지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.

▼ **런타임 데이터 영역 (Runtime Data Area)** : JVM 의 메모리 영역으로,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영역

- **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영역**
- **각 스레드마다 생성되는 개별 영역**
- **Method Area (Runtime Constant Pool 포함)**
 - JVM 에서 읽어들이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런타임 상수 풀, 메소드와 필드, static 변수, 메소드 바이트 코드 등을 포함

- **Runtime Constant Pool**
 - 클래스 파일 constant_pool 테이블에 해당하는 영역
 - 클래스, 인터페이스 상수, 메소드, 필드에 대한 모든 레퍼런스 저장
 - JVM은 런타임 상수 풀을 통해 해당 메소드나 필드의 실제 메모리 상 주소를 찾아 참조
- JVM 시작 시에 생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저장됨 / 명시적으로 null 선언 시 GC 대상 (구성 방식이나 GC 방법은 JVM 벤더마다 상이)
- **Heap**
 -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**런타임 시에 동적으로 할당하여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**
 - new 연산자를 통해 생성한 객체 또는 배열을 저장
 - JVM이 관리
 - 객체가 더이상 사용되지 않거나, 명시적으로 Null 선언 시 GC의 대상이 됨 (구성 방식이나 GC 방법은 JVM 벤더마다 상이)
- **Stack**
 - 선입후출 구조로, 메소드 호출 시 생성되는 수행정보를 기록하는 Frame을 저장
 - 메소드 정보, 지역변수, 매개변수, 연산 중 발생하는 임시 데이터 저장
- **PC Register**
 - 현재 실행 중인 JVM 주소를 가짐
 - CPU 명령어 (instruction)을 수행
 - CPU 명령어 수행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CPU 내 기억장치인 레지스터에 저장
 - 연산 및 결과값을 메모리에 전달하기 전, CPU 내의 기억장치
- **Native Method Stack**
 - Native Code : JAVA에서 부모가 되는 C언어나, C++, 어셈블리어로 구성된 코드
 - 자바 외 언어로 작성된 Native Code를 위한 메모리
 - Java Native Interface를 통해 바이트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됨

▼ **JNI (Java Native Interface == 네이티브 메소드 인터페이스)** : 네이티브 메소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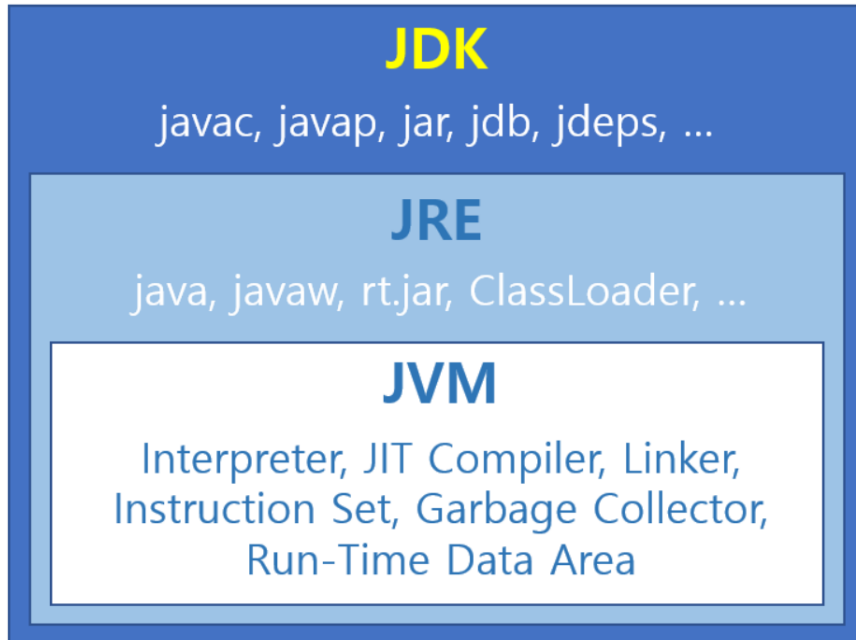


- native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의 이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, 네이티브 메소드 내에 구현된 로직을 실행할 수 있음

▼ **네이티브 메소드 라이브러리** : 네이티브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

- 이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메소드 인터페이스를 거쳐야 함

JDK와 JRE의 차이



- **JDK** : Java Development Kit
 - 컴파일러 (javac), 역어셈블러 (javap), 디버거 (jdb) 등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
- **JRE** : Java Runtime Environment
 - 자바 실행 명령, 프로그램 실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시작 프로그램 파일(javaw.exe), 클래스로더와 바이트코드의 실행(java.exe)에 필요한 기본 라이브러리(rt.jar) 제공
- JDK 의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class 파일을 만들고,
JRE 의 java 명령어를 사용해서 클래스파일의 바이트코드를 실행하도록 요청하면,
JVM 이 구동되면서 바이트코드가 실질적으로 실행된다 (실제 OS에 메모리 할당/회수, 시스템 명령 호출 등..)

번외) 클래스파일과 바이트 코드

- 클래스 파일) 바이트 코드
1. **클래스 정보**: 클래스 파일에는 클래스의 이름, 상위 클래스 및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
 2. **필드 정보**
 -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(멤버 변수)에 대한 정보가 클래스 파일에 포함

- 이 정보는 필드의 이름, 데이터 유형, 액세스 제어자 등을 포함

3. 메서드 정보

-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(함수)에 대한 정보도 클래스 파일에 저장
- 이 정보에는 메서드 이름, 반환 유형, 매개 변수 목록, 액세스 제어자 등이 포함

4. 상수 풀(Constant Pool)

- 클래스 파일은 상수 풀이라는 특별한 데이터 구조를 포함
- 상수 풀에는 클래스의 상수, 문자열 리터럴, 필드 및 메서드에 대한 참조 등이 저장됨
→ 이 상수 풀은 바이트 코드에서 **상수에 대한 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**하는 데 사용됨

5. 바이트 코드 :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, 클래스 파일에는 JVM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바이트 코드가 포함되는데, 이 바이트 코드는 클래스의 메서드 내용을 나타냄

6. 기타 부가 정보: 클래스 파일에는 메서드에 대한 예외 처리 정보, 디버깅 정보, 메타데이터 등 다양한 부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
- 이러한 정보는 JVM이 클래스 파일을 로드하고 실행할 때 사용됨